

베이비부머는 빈곤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 노동경력을 중심으로

지은정*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11차 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부머의 노동경력에 따른 빈곤위험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청장년세대의 빈곤율은 2006~2016년 사이 감소하였지만, 베이비부머는 증가하였고 소비빈곤의 증가율은 경미하지만 현세대 노인보다 높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해도 노인 빈곤율이 크게 감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46%는 2006년 이후 한번 이상 실직을 경험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비율이 높다. 베이비부머의 직업력이 높다는 진단은 40대 중반까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노동경력에 따라 소득빈곤은 10배, 소비빈곤은 20배 차이난다. 특히, 40대 후반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베이비부머의 소득빈곤율은 60.1%, 소비빈곤율도 51.3%로 높다. 자산을 현금화해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빈곤에 한번 진입하면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베이비부머에 대해 낙관적 기대로 대처하면 노인빈곤문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제어: 베이비부머, 노인, 빈곤, 노동경력

I.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는 높은 노인빈곤이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 '노인=빈곤인구'라는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조선일보, 2016.11.10). 베이비부머는 현세대 노인과는 달리 교육수준이 높고 노동시장에 일찍 안착해서 근속기간이 길며 다른 세대보다 임금근로자 특히, 전문·관리직

*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정책, 고용정책, 노인일자리 등이다(jieun29@gmail.com).

의 비율이 높아서(박길성 외, 2005; 송양민, 2010; 대통령실, 2011; 총리실, 2011; 이성균, 2011; 황기돈, 2011; 박진희, 2012; 신동면, 2013; Frey, 2010; Quinn, 2010) 직업 성취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전 세대보다 건강해서(Pruchno, 2012) 베이비부머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베이비붐 세대 스스로도 과거의 노인에게 부여된 이미지와 역할을 거부하고 '새로운 형태의 노인' 혹은 '가교 세대(bridging generation)'임을 자처하며(Simon et al., 2007; Phillipson, 2007 재인용) 현 세대 노인과 동일시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베이비부머는 빈곤위험으로부터 안전할까? 베이비부머라고 해도 생애 주된 직장에서 빨리 퇴출되고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해서 열악한 근로생애사를 경험하고(방하남, 2011; 박진희, 2012; 신동면, 2013; 유병규·이주협, 2013), 노후준비도 부족한 계층이 많다(이승신, 2013; 한국은행, 2016¹⁾)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면 안정된 노동시장경력을 바탕으로 축적한 자산과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에 힘입어 높은 노인빈곤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희망에 그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많지 않았다. 2010년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3~4년간 관련정책이 발표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술적으로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만, 노후준비나 계속 근로의사(재취업의사), 정신건강(우울증, 자아존중감 등)에 대해 수행되었을 뿐이다. 베이비부머의 불안정한 노동경력을 조명한 논문은 있지만(방하남, 2011; 이성균, 2011; 한경혜, 2011; 황기돈, 2011; 박진희, 2012; 신동면, 2013; 유병규·이주협, 2013), 노동경력과 빈곤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다. 개인의 경제수준이나 사회적 성취는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생애노동경력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임에도(Groenou and Deeg, 2010; Riley, 1994; 이성균, 2011 재인용; 홍백의, 2005; 석상훈, 2009; 지은정, 2009; 석상훈·김현수, 2012; 김재호, 2014) 불구하고 베이비부머의 노동경력과 빈곤에 주목한 연구는 극히 적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노동경력이 안정적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것처럼 빈곤위험이 낮은지 연구하였다. 또한 소득빈곤뿐 아니라, 소비빈곤도 분석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분석은 한국복지패널 1~11차 자료를 활용하고 이분변수 분석에 적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베이비부머 가구주로서, 관

1) 베이비부머 중 노후생활비를 준비하고 있는 비율은 41.5%에 불과하다(이승신, 2013).

찰 시작시점(1차)부터 종료시점(11차)까지 응답한 796명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베이비부머의 근로생애 특성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전쟁의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50년대에 태어나 콩나물교실, 옥수수죽 급식 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상징되는 근대화가 시작된 시기에 유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대학교 진학의 기회가 확대되어 다른 세대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적 성취도가 컸다(박길성 외, 2010; 송양민, 2010; 방하남, 2011; 이성균, 2011; 한경혜, 2011; 황기돈, 2011). 베이비붐 세대가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 본격적으로 취업한 1980년대 중반은 수출산업 호조기를 거쳐 88올림픽 특수를, 1990년대 초반은 건설경기 호황으로 고도성장이 지속되던 시기였다. 비록 출산율 급증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과도한 경쟁구도에 놓였지만, 동시에 고도성장에 따른 노동수요와 임금근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여²⁾ 베이비부머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빨리 정착하였다(박진희, 2012; 신동면, 2013). 더불어 확대·팽창하는 경제 사회적 자원과 일자리 기회를 통해 초기의 직업경력도 상승 이동의 조류를 탔던 것으로 보인다(방하남, 2011). 이 같은 성취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가 점유 비율도 80%를 상회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소득보장정책의 혜택으로 가처분소득도 양호하다(한국은행, 2016).

그런데도 베이비붐 세대를 ‘벼락 맞은 세대’로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목제였던 평생직장·정규직 위주의 고용형태·연공급 보상체계가 무너지는 직업 불안정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한경혜, 2011; 황기돈, 2011). 베이비붐 세대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에 IMF 외환위기를 겪고, 그 이후 2003년 카드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근로생애의 정점을 맞지만, 생애 주직장에서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었다(방하남, 2011; 신동면, 2013).

또한 베이비부머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5.9%만 정년퇴직하였고(조기·희망퇴직 포함. 유병규·이준협, 2013), 고용보험을 취득한 일자리에서 노동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베이비부머는 5.6%(약 20만 명)에 불과하다. 노동이동을 경험

2)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다(62.4%. 이전 세대 47.7%. 박진희, 2012).

한 베이비부머가 첫 번째 일자리에서 이직한 평균연령은 43.7세(남성 42.8세, 여성 45.0세)이고, 두 번째 일자리에서 이직한 연령도 45.6세로 매우 낮다(남성 44.9세, 여성 46.8세. 박진희, 2012). 베이비부머의 상당수는 40대 전후에 퇴직한 후 경제상황의 악화로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고용불안에 처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세대보다 부채 규모도 크고(곽인숙·홍성의, 2013) 자산도 금융자산(6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 8천 만 원에 불과하다(남상호, 2011). 노후가 준비되지 못한 비율도 높다. 노후대비가 충분하다는 베이비부머는 6.1%에 불과하고(한국은행, 2016), 공적·사적 연금이 없는 비율도 56.7%로 절반을 넘는다(비취업자는 79.2%. 석재은·이기주, 2010; 백은영, 2011 재인용).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하면 노인 빈곤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2. 선행연구

1) 노동경력과 빈곤

(1) 근로기간과 빈곤

노동경력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고용불안정에 대한 연구, 고령자의 노동지위와 생애노동경력에 대한 연구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용불안정과 빈곤에 대한 연구결과의 공통점은 근로빈곤층이 비빈곤층에 비해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이하 비경제활동) 상태를 반복하며 잦은 이직으로 인한 고용단절을 경험하고 임시·일용직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한다는 것이다(이병희·반정호, 2009; 이주환·김교성, 2013). 3년간 노동이동을 한 비율은 59.2%에 이르러 높지만(박능후·배미원, 2009), 근로빈곤층 가운데 10% 미만만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여(최옥금, 2005), 불안한 고용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고령층도 예외는 아니다. 고령구직자는 실업상태가 장기화되거나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차단되어 실업→저임금→실업→저임금 일자리 취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Ramos-diaz, 2005; 윤윤규 외, 2008; 김재호, 2014 재인용). 베이비부머도 상당한 수준의 고용불안을 경험하고 있다(장지연 외, 2009; 정해식 외, 2014 재인용). 베이비부머의 생애 초반은 확대된 기회, 폭넓은 선택으로 시작하였지만 생애 후반은 비자발적 퇴장, 기회축소로 특징지어진 굴곡이 많은 생애를 살았다(방하남, 2011). 결국 베이비부머는 그 이전 세대보다 열악한 근로 생애사를 경험하고(방하남, 2011; 신동면, 2013; 한경혜, 2011; 박진희, 2012; 유병규·이준협, 2013), 늘어난

평균 수명으로 인해 과거 어떤 세대보다 퇴직 후의 긴 시간을 보내야 한다(김기현, 2011). 이와 같은 노동경력의 불안정은 빈곤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 생애 첫직장의 종사상 지위와 빈곤

고령자의 빈곤은 현재의 특성뿐 아니라, 과거의 근로 경험과 생애노동경력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홍백의, 2005; 석상훈, 2009; 지은정, 2009; 석상훈·김현수, 2012; 김재호, 2014). 과거의 직업력(종사상 지위, 직종)이 현재 노동지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첫 직장의 직업지위가 그 이후의 직업지위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Blau and Duncan, 1967, 차종천, 1992; 방하남·김기현, 2001; 지은정, 2009 재인용). 노년기 빈곤도 노인이 되어서 갑자기 발생하기 보다는(은퇴, 건강악화 등), 노년기 이전의 사건 즉 교육과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형태, 과거 직업력, 생애 근로이력(혹은 퇴직과정)에 따라 달라진다(홍백의, 2005; 석상훈, 2009; 석상훈·김현수, 2012; 김재호, 2014). 노동경력이 불안정한 베이비부머는 빈곤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첫 직장의 종사상 지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구주가 상용직 근로자일 경우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고(강병찬·박병현, 2010; 이상록, 2011; 석상훈, 2011; 석상훈·김현수, 2012), 근로빈곤층의 대다수는 임시직·일용직·영세 자영업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해서(이병희, 2009; 이병희·반정호, 2009) 빈곤위험이 높다. 정규직은 근로이행 가능성이 낮아서 생애기간에 걸쳐 근로안정성이 높은 반면(강성호 외, 2015), 비정규직과 비임금 근로자는 빈곤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빈곤은 소득의 규모뿐 아니라 소득의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이상록, 2011) 정규직이나 고용의 질이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만 빈곤을 탈출할 수 있음을(이병희·반정호, 2009; 강금봉, 2016) 말해준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동시장지위도 과거 직업경험 혹은 생애노동경력의 연속선상에서 나타나므로(이성균, 2011) 첫 직장의 종사상 지위가 현재의 빈곤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빈곤

베이비부머의 개인특성에 따라 빈곤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관련 요인을 보면 첫째, 출생시기를 들 수 있다. 미국의 베이비부머가 다른 세대보다 소득이 많지만, 형 세대인 베이비부머가 경제성장에 힘입어 동생격인 베이비부머보다 노동시장에서의 기회가 더 풍부했고 부모 더 많이 축적했다(Cornman and Kingson, 1996). 반면, 우

리나라는 1950년대에 태어난 형 세대보다 1960년대에 태어난 동생 세대가 대학졸업장의 프리미엄을 더 많이 향유하고(방하남, 2011³⁾), 경제적·사회적 번영도 더 많이 누렸다. 후기 베이비부머일수록 교육적 성취와 직업기회가 풍부해서 경제적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고학력의 혜택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린 것은 아니다. 대학정원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변화를 통하여 고등 교육기관에 진학하였으나, 대졸 이상은 여전히 1/4에 못 미치고(이성균, 2011), 베이비부머 가운데 경제적 형편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도 높다(64.2%. 통계청, 2010a). 더구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위험이 높아져(최현수·류연규, 2003; 석재은·임정기, 2007) 베이비부머도 교육수준에 따라 빈곤지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가능성이 높아지지만(석재은·임정기, 2007; 강병찬·박병현, 2010)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빈곤율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보다 월등히 높고(윤희숙, 2013), 근로빈곤층의 경우 취업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탈출 가능성이 높아진다(이병희·반정호, 2009). 노인도 경제활동연령대의 가구원과 동거하면 빈곤위험이 낮게 나타났다(최현수·류연규, 2003). 넷째, 건강이 노인의 총소득에 유의한 변인은 아니지만(석재은·임정기, 2007) 건강한 사람은 물질적 궁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이상록, 2011). 건강이 나쁠수록 특히 장애가 있으면 노동가능성이 나빠져서 단순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반면, 의료비지출은 많아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성별과 빈곤의 관계는 정형화된 결과를 보여준다. 여성(노인)이 남성보다 빈곤율이 높지만 빈곤탈출율은 낮고(최현수·류연규, 2003; 석재은·임정기, 2007; 이상록, 2011) 빈곤기간은 장기화되어(강병찬·박병현, 2010; 석재은, 2013; 우해봉, 2013; 남수정·황혜선, 2017) 빈곤위험이 높다.

3. 베이비부머 정책

2010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통계청, 2010b)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고⁴⁾, 정부의 정책개발도 본격화되었다. 특히, 제2차 저출산·고령사

3) 베이비붐 세대는 초·중·고등학교 시설 확대, 고등학교 평준화, 대학졸업 정원제 등 매우 다양한 교육제도 변화를 체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세대보다 교육수준이 높다. 1965년 36.6%에 이르던 중학교 진학률은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전형제도 실시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진학률도 1974년의 교육평준화 정책 이후 확대되었다. 특히 4년제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70년대까지 완만히 증가하다가 1981년의 대학졸업정원정책을 계기로 급증하였다(방하남, 2011; 이성균, 2011).

회기본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를 정책대상으로 명시하고 3대 과제의 하나로 강조하였으며 대통령실, 총리실, 관계부처합동 발표에서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고령자들이 현재의 일자리에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정년연장 유도, 임금피크제, 교육훈련, 고령친화적 환경조성 등) 퇴직에 대비한 전직지원, 창업준비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대한민국정부, 2010; 대통령실, 2011; 총리실, 2011; 관계부처합동, 2012; 지은정, 2017 재인용). 그러나 이것도 잠시일 뿐, 2012년 이후에는 핵심 사회적 이슈에서 멀어졌다. 베이비부머의 대량 퇴직이 시작된 2010년에는 47~55세였지만, 올해는 55~63세이기 때문에 노인 정책과 고령자 정책을 수정보완하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다른 연령대의 노동시장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은 다른 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1〉 정부의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정책

구분	정부 계획	주요 내용
대한민국정부 (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 고령자 고용연장,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 정책
대통령실 (2011)	베이비붐 세대 정책	·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연장방안, 퇴직 후 재취업,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 지원
총리실 (2011)	베이비붐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완방안	·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고용연장 유도,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지원, 상생형 일자리 지속 발굴
관계부처합동 (2012)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창출대책	· 50세 이상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 폴리텍 대학 등에 베이비붐 세대 특별과정 확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등

자료) 대한민국정부(2010), 대통령실(2011), 총리실(2011), 관계부처합동(2012)을 바탕으로 한 지은정(2017) 수정·편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으로는 베이비부머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

4) 당시 평균 은퇴연령이 55~57세이었는데, 2010년 베이비붐세대의 만행 격인 1955년생이 만 55세가 되는 2010년부터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이 시작했다고 진단된다(김용하·임성은, 2011). 베이비부머 중 정년 퇴직자는 약 54.2세에 정년을 맞이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평균 정년연령(55세)과 유사해서(김용하·임성은, 2011; 박진희, 2012)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가 있다. 정부가 베이비부머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했지만, 사회공헌활동·재능나눔 사업이 많고, 일자리는 훈련강사사업, 시니어청년 융합형사업 지원 등(창업지원. 대한민국정부, 2010; 대통령실, 2011; 총리실, 2011; 관계부처합동, 2012; 지은정, 2017 재인용) 많지 않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사업은 저소득·저학력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많아서, 인적자본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지은정, 2017). 물론 최근 50~60대를 위한 신중년 정책이 발표되었지만(일자리위원회), 장년 고용정책(2014년 하반기 발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2016년 말 발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5년 말 발표)을 수정·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뤄졌을 뿐이다. 베이비부머가 곧 노년기에 진입한다고 우려하지만 고학력의 직업력이 풍부한 계층을 위한 정책도, 불안한 고용경력으로 빈곤위험이 높은 베이비부머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도 부족한 것을 말해준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1~11차이다. 한국복지패널은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한국의료패널조사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⁵⁾ 전국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제주도, 농어가 포함). 조사도 가구 및 가구의 일반적 특성, 경제활동상태, 소득 및 소비지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분석에 적합하다. 자료는 각 연도별 개인자료와 가구자료의 1~11차 자료를 병합(merge)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일 때 종속변수의 기댓값 $E(Y|X)$ y^* 은 $-\infty$ 에서 ∞ 의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0에서 1의 값을 갖게 되고 예측된 종속변수의 값은 사건(event)이 발생할 확률(probability)이 된다. y^* 은 관측되지 않은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써 일정 지점(threshold or cutoff line, τ)보다 크면 1, 작으면 0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은 빈곤을, 0은 비빈곤 상태를 뜻한다. y^* 은 연속변수이지만 관측되지 않아서 Maximum Likelihood로 추정하였다. 분포는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일 때 ϵ_i 의 분포에 따라 프로빗 모형(probit model)과 로짓모형(logit model)으로

5) 11차 데이터의 가구 단위 관측치는 6,723가구, 개인 단위 관측치는 16,664명이다.

분석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ϵ_i 가 로지스틱 분포(standard logistic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종속변수가 발생할 확률에 대해 지수함수 $\exp(\alpha + \beta x) = e^{\alpha + \beta x}$ 로 나타내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Long, 1997) 분석하였다.

2.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가구주이다. 베이비 붐(baby boom)의 정의는 인구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인구학적 관점의 베이비부머는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출산율이 급증하던 시기에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반면, 사회학적 관점의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와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소비문화, 삶의 방식-life style, 문화, 교육수준, 직업이력, 건강 등) 다른 집단, 즉 사회적으로 분류된 집단이다(Phillipson, 2012; Pruchno, 2012). 국내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에(generation⁶⁾) 집단적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인구학적 관점에 따라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의⁷⁾ 도입으로 출산율이 둔화되는 1963년에 태어난 인구집단으로 기술한 연구가 많다(김우성·허은정, 2007; 박길성 외, 2010; 방하남, 2011; 한경혜, 2010; 황기돈, 2011; 이성균, 2011). 본 연구도 베이비붐 세대가 어떤 정체성을 공유한 집단인지 보다, 불안정한 노동경력으로 빈곤위험에 노출되었는지에 주목해서 인구학적 기준을 따랐다. 한편,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가운데 가구주를 연구하였다. 가구주는 주생계부양자로서 가구주의 고용상태가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처럼 가구주를 분석한 연구는 이병희·반정호(2009), 석상훈(2011), 석상훈·김현수(2012), 이주환·김교성(2013), 남수정·황혜선(2017) 등을 들 수 있다. 최종분석대상은 1~11차까지 응답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가구주 796명이다.

6) 엄밀히 말하면, 세대는 “출생동시집단이나 단순한 동년배 집단의 의미를 넘어서서 역사적 사건이나 공통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집단”이다. 과학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의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집단적 정체성을 뜻한다(방하남, 2011; 한경혜,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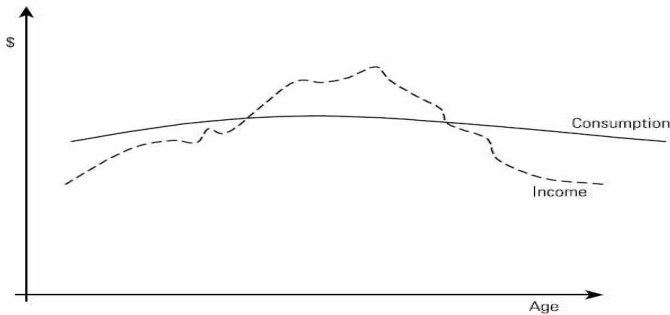
7) 1960년은 “아들 셋 딸 셋”이 이상적인 자녀수였고, 평균 출산율은 6.2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높은 출산율이 경제성장의 압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 정부는 “뉘어놓고 낳다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는 기치 하에 강도 높은 가족계획 정책을 실시하였다(박길성 외, 2005).

2. 연구모형의 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관찰종료시점(11차)의 빈곤여부이다. 빈곤층은 빈곤진입과 탈출이 빈번하기 때문에(최옥금, 2005; 이병희·반정호, 2009; 박능후·배미원, 2009; 이주환·김교성, 2013)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빈곤여부는 베이비부머의 경제여건을 파악하는데 부족하다. 그러나 빈곤 특히, 고령자의 경제상태는 상태의존성이 강해서 빈곤여부를 종속변수로 삼았다.

〈그림 1〉 생애주기가설: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프로파일



자료) Houghton and Shahidur R.(2009)

첫째, 빈곤기준은 소득과 소비지출을 사용하였다. 가구(개인)의 복지(welfare)나 경제상태는 소득으로 측정하기도 하지만 선진국가에서는 소비가 소득보다 더 적절한 지표로 간주된다. 소득은 하향신고하는 경향으로 인해 빈곤율이 과대 측정되기 쉽고 생애주기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소비는 현재의 근로소득 뿐 아니라 과거에 축적한 자산에 의해서도 결정되어 생애기간 동안 균등한 분포를 보이기(〈그림 1〉 참고. Modigliani and Brumberg, 1962; Ando and Modigliani, 1963 정운영·정세은, 2010 재인용; 김대일, 2007)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과 소비지출을 모두 사용하였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이다(disposable income. 만원 단위. 연단위). 소비지출은 ①식료품비(식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②주거비(월세, 주거관리비), ③광열수도비·난방비, ④가구가사용품비(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육료비), 피복신발비, ⑤보건의료비,

⑥교통비·통신비, ⑦교약오락비, ⑧기타소비지출(경조비, 십일조 등 종교관련비), ⑨ 비동거가구원/부모/자녀/기타 가구원이 아닌 부모·자녀·친지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 보조비의 합계로 측정하였다(만원 단위, 월평균).

둘째, 빈곤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 혹은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된다(김교성 외, 2008). 빈곤율은 빈곤한 사람 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써, 절대(absolute) 빈곤과 상대(relative)빈곤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Haughton and Shahidur R., 2009⁸⁾). 본 연구는 상대빈곤을 사용하였다.

〈표 2〉 1~11차의 가구균등화 중위 소득·소비지출(월)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소득	95.6	113.8	125.1	135.3	144.2	155.4	156.0	166.4	170.2	174.7	186.3
소비	96.5	108.8	116.7	124.7	131.2	156.3	158.7	172.9	167.9	172.6	181.2

주) 소득은 연단위를 월단위로 바꾸어 제시하였음.

자료) 1~11차 각 연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상대빈곤은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향상되어도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않으면 감소하지 않고, 전체 국민의 소득(삶의 수준)에 비추어 빈곤을 판정하기(OECD, 2009)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빈곤은 중위(median) 소득의 50% 미만이면 1(빈곤), 그 이상이면 0(비빈곤)으로 측정하였다. 소비지출도 중위지출의 50%미만이면 1, 그 이상이면 0으로 입력하였다(〈표 2〉 참고).

셋째, 빈곤의 측정단위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가구원끼리 소득과 소비지출을 공유하고, OECD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정해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단위에서 빈곤을 측정하고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한 논문은 이병희·반정호(2009), 강금봉(2016)을 들 수 있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노동경력이다. 일반적으로 노동경험은 t 시점과 $t + 1$ 시점

8)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관적 빈곤은 생존에 필요한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빈곤을 규명하는 것이다. 주관적 빈곤은 사회구성원이 빈곤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준을 직접 포착할 수 있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김교성 외, 2008)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사이의 변화만 고려하지만, 이로써는 고용상태의 역동적인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다(성재민, 2011).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이 빈번해졌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경제활동상태는 고용경력의 단면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경력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처럼 노동경력을 분석한 연구는 최옥금(2005), 지은정(2007), 박능후·배미원(2009), 이주환·김교성(2013) 그리고 베이비부머의 근로생애 사건을 조망한 신동균(2013)이 있다. 한편 노동경력은 종사상 지위(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 고용상태(취업/실업), 직종의 변화(반정호, 2010; 이주환·김교성, 2013 재인용; 한준·장지연, 2000; 문혜진, 2012) 혹은 사업장 규모와 직장 수의 변화로(문혜진, 2012) 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취업기간과 생애 첫 직장의 종사상 지위로 삼았다.

첫째, 1~11차 동안의 취업기간이다(0~11년). 취업은 주당 1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써,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공공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일시휴직자(병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가 해당된다. 본 연구처럼 취업기간을 노동경력으로 분석한 논문은 이주환·김교성(2013)의 연구가 있다. 둘째, 생애 첫 직장의 특성은 종사상 지위로 측정하였다. 첫 직장에서 어떤 종사상 지위였는지에 따라 생애노동경력이 달라져서 노년기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한국복지패널은 매시점마다 15세 이후 직장경험 및 생애 첫 직장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회고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기준변수)의 터미변수로 투입하였다.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시간제+전일제)이거나 비전형 근로자(시간제+전일제) 혹은 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이고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 즉,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비임금 근로자는 고용주(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와 자영업자(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그리고 동일 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이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가구 내 취업자 수, 교육수준, 건강상태, 성별, 출생시기, 혼인상태의 6가지이다. 가구 내 취업자 수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취업상태인 근로자의 수로써 연

속변수로 측정하였다(0~9명).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기준변수)의 더미변수이며,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보다 객관적 상태인 장애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장애가 있으면 1(보훈처 등록 장애인 등 비등록 장애인 포함), 없으면 0으로 입력하였다. 성별은 남성의 경우 0, 여성은 1로, 출생 집단은 형세대면(1955~1959년생) 0, 동생세대는(1960~1965년생) 1로 코딩하였다. 끝으로 혼인상태는 유배우자면 1, 이혼·사별·미혼 등의 무배우자면 0으로 입력하였다.

〈표 3〉 본 연구의 변수 및 측정방법

구분	변수		측정	시점
종속 변수	빈곤		빈곤=1, 비빈곤=0	11차
독립 변수	노동 경력	근로기간	0~11년	1~11차
		생애 첫직장의 종사상 지위	정규직/비정규직/비임금근로자*	1차
통제 변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가구내 취업자 수	0~9명	10차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중졸/고졸/전문대졸 이상*	
		건강상태	장애=1, 비장애=0*	
		성별	남성=0*, 여성=1	
		출생시기	형세대(1955~1959년생)=0*, 동생세대(1960~1965년생)=1	
혼인상태	유배우자=1, 무배우자=0(이혼·사별·미혼 등)*			

주) *= 기준변수

IV. 분석결과

1. 연도별 가구주의 빈곤율

가구주의 빈곤율 추이(2006~2011년)를 3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연령그룹을 막론하고 소득빈곤은 소비빈곤보다 높다. 적게는 2.2%에서 많게는 7.9%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연령그룹별 빈곤율 추이는 빈곤기준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룹별로 보면, 현세대 노인(1954년 이전~)의 빈곤율은 2006년 42.1%에서 2016년 46.7%로 증가하였다(4.6%p, 소득빈곤 기준). 그러나 청장년 세대

의(1964년 이후~) 빈곤율은 조사시점 당시(2006년)에는 8.7%였지만, 11년 뒤에는 (2016년) 5.8%로 감소하여(2.9%p)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표 4〉 연도별 가구주의 연도별 빈곤율

구분		베이비부머 이전(노인)		베이비부머		베이비부머 이후(청장년)		전체 가구주	
		빈곤율	사례수	빈곤율	사례수	빈곤율	사례수	빈곤율	사례수
1차 (‘06년)	소득	42.1	3,786	12.2	1,315	8.7	1,971	27.3	7,072
	소비	38.6		7.1		3.8		23.0	
2차 (‘07년)	소득	42.3	3,591	12.7	1,189	6.4	1,800	27.1	6,580
	소비	39.5		7.7		4.3		24.1	
3차 (‘08년)	소득	42.0	3,475	12.0	1,100	7.0	1,739	27.1	6,314
	소비	35.8		6.5		2.9		21.6	
4차 (‘09년)	소득	40.8	3,379	10.0	1,063	6.7	1,765	25.8	6,207
	소비	35.3		6.0		2.8		21.1	
5차 (‘10년)	소득	39.7	3,256	10.0	1,022	10.5	1,756	25.0	6,034
	소비	35.3		5.4		3.1		20.8	
6차 (‘11년)	소득	42.4	3,085	11.2	968	5.8	1,682	26.4	5,735
	소비	33.8		6.3		2.7		20.1	
7차 (‘12년)	소득	43.2	4,171	11.2	1,218	5.4	2,143	27.3	7,532
	소비	35.3		7.5		3.2		21.7	
8차 (‘13년)	소득	43.6	4,017	13.1	1,187	5.8	2,108	27.8	7,312
	소비	36.7		8.4		3.4		22.5	
9차 (‘14년)	소득	47.4	3,861	14.2	1,134	6.0	2,052	30.0	7,047
	소비	40.5		8.7		3.3		24.5	
10차 (‘15년)	소득	47.1	3,749	14.3	1,109	5.9	2,056	29.6	6,914
	소비	40.3		8.4		3.7		24.3	
11차 (‘16년)	소득	46.7	3,616	14.8	1,066	5.8	2,041	29.3	6,723
	소비	40.5		9.3		4.0		24.4	

주) 사례수는 베이비부머 이전, 베이비부머, 베이비부머 이후, 전체 가구주임.

그렇다면 아직 노인이 아닌 베이비부머의 빈곤율도 감소추세를 보일 것인가. 분석 결과, 베이비부머 가구주의 빈곤은 2006년에는 12.2%였지만, 2016년에는 14.8%로 2.6%p 높아졌다. 소비빈곤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베이비부머의 빈곤율은 같은 시기 2.2%p 높아져서 청장년(0.2%p) 및 현세대 노인의 빈곤증가율(2.0%p)보다 더 높다.

베이비부머는 높은 교육수준과 직업적 성취를 바탕으로 빈곤률이 낮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다. 더구나 베이비부머는 아직 노동시장의 중심계층이다. 분석 시작시점(1차)에는 47~55세의 핵심 노동계층이었고, 분석 종료시점(11차)에도 53~61세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년 계층과는 달리, 최근으로 올수록 빈곤율이 더 높아졌다. 빈곤은 상태의존성 때문에 장기화·구조화되어 한번 진입하면 벗어나기 어렵기(이병희·반정호, 2009; 김성태 외, 2016) 때문에 베이비부머의 빈곤이 노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베이비부머에 대해 낙관적 기대로 대처하면, 노인빈곤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2.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빈곤율

최종분석대상인 베이비부머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과 빈곤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⁹⁾. 베이비부머 가운데 취업기간이 11년 즉, 분석기간 동안 한 번도 실직이나 비경험 상태를 경험하지 않은 베이비부머는 54.3%이고, 1년 이상 실직이나 비경험을 경험한 비율이 45.7%로 나타났다. 가구주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기간이 3년 이하인 비율도 7.5%였고, 4~7년은 8.4%로 나타났다. 경제가 확대·팽창하는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다른 세대보다 직업력이 견고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베이비부머 가구주의 절반만 고용이 안정적이고 46%는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고용불안정은 빈곤으로 이어진다. 분석기간 동안 한 번도 실직을 경험하지 않은 베이비부머의 빈곤율은 4.4%로 낮지만(소득빈곤, 소비빈곤 1.6%), 3년 이하인 베이비부머의 빈곤율은 49.1%이다. 노동경력이 불안정한 베이비부머 2명 가운데 1명이 빈곤상태로, OECD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는 현세대 노인빈곤율(46.7%, 2016년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보다 더 높다. 소비빈곤도 38.6%에 이르러, 10명 중 4명이 가난하다. 베이비부머는 노년기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연금으로 소득감소를 보완할 수 없어서 자산을 현금화하고 소비지출을 줄여도 빈곤을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알 수 있다.

첫 직장의 특성을 보면, 생애 첫직장이 정규직인 비율은 32.3%, 비정규직은 32.4%, 비임금 근로자는 34.0%로 비슷하다. 베이비부머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당시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노동수요가 풍부했지만(박진희, 2012; 신동면, 2013), 모든 베이비부머가 안정된 정규직의 혜택을 누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9) 11차 베이비부머의 빈곤율(14.8%, <표 4> 참고)보다 낮은 것은 1~11차가 되면서 빈곤한 베이비부머가 조사에서 탈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빈곤율

(사례수: 796명)

구분			빈도 (명)	비율 (%)	빈곤율(%)		차이검증	
					소득	소비	소득	소비
빈곤	소득	빈곤	89	11.8	-	-	-	-
		비빈곤	664	88.2	-	-		
	소비	빈곤	55	7.3	-	-		
		비빈곤	698	92.7	-	-		
노동 경력	취업 기간	0~3년	60	7.5	49.1	38.6	.000***	.000***
		4~7년	67	8.4	22.7	18.2		
		8~10년	237	29.8	13.6	7.1		
		11년	432	54.3	4.4	1.6		
	생애 첫직장의 종사상지위	비정규직	257	32.3	16.9	11.9	.000***	.000***
		정규직	258	32.4	4.9	2.9		
		비임금근로자	271	34.0	11.8	4.8		
가구특성	근로 자수	1~2명	223	28.0	26.7	20.4	.000***	.000***
		3~4명	386	48.5	7.4	3.3		
		5명 이상	187	23.5	3.8	0.5		
	배우자	무(無)	213	26.8	27.3	20.5	.000***	.000***
		유(有)	583	73.2	6.0	2.4		
일반적 특성	장애	비장애	691	86.8	6.0	5.4	.001**	.001**
		장애	105	13.2	9.8	19.8		
	교육 수준	초졸이하	109	13.7	11.8	23.1	.000***	.000***
		중졸	153	19.2	12.1	5.4		
		고졸	355	44.6	8.3	5.7		
		대졸	179	22.5	7.3	2.4		
	출생 연도	1955~1959	401	50.4	14.0	8.5	.061	183
		1960~1963	395	49.6	9.6	6.0		
	성별	여성	141	17.7	22.4	16.4	.001**	.001**
		남성	655	82.3	9.5	5.3		

주) 1) 1~11차까지 모두 응답한 베이비부머 가구주만 분석한 결과임.

2) 빈곤율은 결측치 43명(5.4%)을 제외한 비율임.

또한 첫 직장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현재 시점의 빈곤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첫 직장을 정규직으로 시작한 베이비부머의 빈곤율은 4.9%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16.9%로 가장 높고 비임금 근로자가 11.8%로 나타났다. 퇴직 후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으로 이동할 경우 빈곤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김재호, 2014) 유사하다.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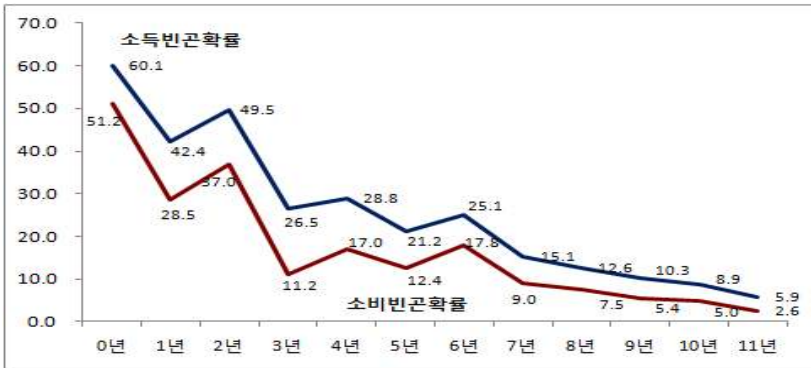
규직은 상대적으로 고용과 소득 안정성이 높은 반면, 비임금 근로자는 대부분 생계형 창업으로 시작하여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부족하고 정규직보다 소득 안정성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가구특성을 보면, 근로자 수가 1~2명인 비율이 28.0%이고, 3~4명 48.5%, 5명 이상이 23.5%이다. 베이비부머의 성인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일하는 비율이 높기로 보여진다. 또한 가구내 근로자수에 따라 빈곤율의 차이를 보인다. 가구내 근로자수가 1~2명인 경우 즉, 베이비부머와 그 외 가구원이 일할 경우 빈곤율이 26.7%이지만, 3~4명이면 7.4%이고, 5명 이상 일하면 3.8%로 급락한다. 일하는 가구원이 많을수록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배우자 특성의 경우, 유배우자인 베이비부머가 73.2%로 대부분이고 장애가 있다는 응답은 9.8%였다. 빈곤율은 유배우자일 경우 6.0%, 무배우자일 경우 27.3%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가 있는 베이비부머는 13.2%이고, 장애여부에 따라 빈곤율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수준은 베이비부머 가구주의 23.9%가 중졸이하이고 44.6%가 고졸, 22.5%가 대졸로써 고졸이상의 비율이 (67.1%) 높다. 그러나 고졸(8.3%)과 대졸(7.3%)의 빈곤율은 큰 차이 없고 초졸 이하 (11.8%)와 중졸(12.1%)도 비슷하다. 한편 형제대인 베이비부머(1955~1959년생)는 50.4%이고, 동생세대인 베이비부머는(1960~1963년생) 49.6%로 비슷하다. 그러나 빈곤율은 형제대가 14.0%로, 동생세대의 빈곤율(9.6%)보다 다소 높다. 성별은 남성 베이비부머 가구주가 82.3%이고, 여성가구주가 17.7%로 남성 가구주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빈곤율은 여성 가구주가 22.4%로 남성가구주(9.5%)보다 2배 이상 높다.

3. 베이비부머의 빈곤 결정요인 분석

베이비부머의 빈곤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빈곤과 노동경력(1~11차의 고용안정성과 첫 직장의 종사상지위)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기간이 길수록 베이비부머의 빈곤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신뢰수준 99.9%).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난 11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베이비부머가 빈곤상태에 빠질 위험은 60.1%로 높지만, 11년 동안 취업상태를 지속한 베이비부머의 빈곤위험은 5.9%로 낮다. 고용안정성에 따라 소득빈곤은 10.2배, 소비빈곤은 20배(51.2% vs 2.6%) 차이난다(〈그림 2〉 참고). 베이비부머의 빈곤위험이 낮을 것이라는 기대는 고용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일을 지속한 계층에 한정되고, 노동경력에 따라 빈곤위험이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베이비부머의 빈곤확률(marginal effect estimates)



둘째, 생애 첫 직장의 종사상 지위가 비임금 근로자인 베이비부머에 비해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한 베이비부머의 빈곤확률이 평균 7.6% 낮게 나타났다(odds ratio .320, 신뢰수준 99%). 첫 직장의 안정성은 소득과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직업적 성장기회(승진 사다리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정규직은 고용안정성을 기반으로 직업력의 상승기회를 누리며 고령에도 빈곤위험이 낮다. 그러나 임시일용직이나 비임금 근로자로 시작한 베이비부머는 60세를 전후한 시점에도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다. 임시·일용직은 상용직과 고용주에 비해 임금이 낮고(이성균, 2011),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비정규직으로 복귀하거나 실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고(정동일·권순원, 2016) 노동이동 자체가 빈곤의 원인이 되어 빈곤이 지속될수록 고용기회가 제한되어(이주환·김교성, 2013) 빈곤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자의 빈곤은 현재의 특성 뿐 아니라 생애노동경력에 영향을 받는데 첫 직장의 직업지위가 60세를 전후한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 외 통제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가구내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빈곤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신뢰수준 99.9%). 가구내 근로자가 2명 이하인 베이비부머에 비해 3명 이상인 베이비부머의 빈곤 확률이 평균 19.3%(odds ratio .656) 낮게 나타났다. 취업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탈출 가능성이 높고(이병희·반정호, 2009) 빈곤위험이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와(최현수·류연규, 2003; 윤희숙, 2013) 유사하다.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한 후 성인자녀가 독립하면(결혼, 분가 등), 가구소득이 감소하여 빈곤위험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표 5〉 베이비부머 가구주의 빈곤요인

(사례수: 796명)

구분	변수		소득빈곤			소비빈곤			
			β	sig.	odds ratio	β	sig.	odds ratio	
독립 변수	노동 경력	근로기간	-.21	.000	.809	-.21	.000	.813	
		생애 첫직장 지위	비정규직	-.02	.959	.985	.506	.217	1.69
			정규직	-1.1	.004	.320	-.93	.095	.395
통제 변수	가구특성	가구내 근로자 수	-.42	.000	.656	-.92	.000	.397	
		배우자	-.82	.031	.441	-.55	.286	.578	
	일반적 특성	장애	-.07	.855	.934	.292	.526	1.34	
		교육 수준	초졸	.703	.121	2.02	1.64	.020	5.16
			중졸	-.09	.840	.911	.311	.686	1.36
			고졸	-.27	.516	.762	.709	.301	2.03
		출생시기	-.07	.807	.934	.130	.725	1.14	
		성별	.814	.027	2.26	.743	.080	2.10	
상수		1.19	.052	3.29	.285	.733	1.33		
-2 Log Likelihood/chi-square			404.59/142.56 (df=11)***			238.07/155.65 (df=11)***			

주) 음영은 신뢰수준 9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임(p value < .10)

한편, 남성 베이비부머에 비해 여성 베이비부머의 빈곤확률이 평균 12.2% 높게 나타났다(odds ratio 2.26. 신뢰수준 95%). 여성의 높은 빈곤율을(최현수·류연규, 2003; 석재은·임정기, 2007; 강병찬·박병현, 2010; 이상록, 2011; 석재은, 2013; 남수정·황혜선, 2017)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베이비부머의 빈곤율이 무배우자보다 21.4% 낮게 나타났다(odds ratio .441. 신뢰수준 99%). 배우자가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간병을 위해 일을 포기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으로 소득이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학력과 빈곤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교육수준이 물질적 결핍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이상록, 2011) 유사하다. 베이비부머가 다른 세대보다 고등교육 기회의 혜택을 누렸지만, 집단 내 빈곤율 차이를 유발할 정도는 크지는 않다. 베이비부머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당시는 굴뚝 산업이 확대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어서 중·고졸과 대졸의 빈곤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빈곤을 기준으로 하면, 초졸 이하는 대졸이상에 비해 빈곤 확률이 평균 21.3% 높게 나타났다(odds ratio 5.16. 신뢰수준 95%). 초졸이하는 소

비지출마저 제한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장애가 있는 베이비부머는 소비빈곤확률이 14.6% 높게 나타났다(odds ratio 2.03, 신뢰수준 90%). 끝으로 장애와 출생시기(형세대-동생세대)는 빈곤기준(소득/소비)과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생세대가 대학졸업장의 프리미엄을 더 많이 향유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린 것으로 평가받지만, 빈곤위험은 형 세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세대보다 고등교육과 경제성장의 혜택으로 직업적 성취도가 높고 전문·관리직의 비율이 높아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다른 태생 집단보다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고착도가 좋을 뿐, 열악한 노동생애를 살아온 베이비부머도 많다. 불안정한 근로생애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베이비부머는 노년기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궁핍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다. 베이비부머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로 정책적 노력을 소홀히 하면, '노인빈곤 국가'라는 수식어가 고착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생애의 관점에서 베이비부머의 노동경력과 빈곤을 조명한 논문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 복지패널 1~11차 자료를 활용하여 베이비부머의 불안정한 노동경력과 빈곤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청장년 세대의 빈곤율은 2006~2016년 동안 감소하였지만, 베이비부머의 빈곤율은 높아졌고, 소비빈곤 증가율은 경미하지만 현세대 노인보다 높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베이비부머가 노년기에 진입해도 세계에서 유례없이 높은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기 어렵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약 45.7%는 2006년 이후 한번 이상 실직을 경험하여 노동경력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세대보다 직업적 성취가 높을 것이라는 통념과 다르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빈곤도 노동시장의 경험이 누적되어 나타났다. 특히, 노동경력이 불안정할수록 빈곤율이 높아져서, 40대 후반 이후 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베이비부머의 빈곤위험은(60.1%) 취업상태를 계속 유지한 베이비부머에(5.9%) 비해 10.2배 높다. 소비빈곤은 각각 51.3%와 2.6%로 20배 차이난다. 자산을 현금화하고 소비지출을 줄여도 빈곤을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으로 측정할 경우보다 낮지만 소비빈곤도 위험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경제가 호황일 때 안정된 일자리에 일찍 입직하여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한 베이비부머라

고 할지라도 40대 후반이후 고용이 단절되면 빈곤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더구나 베이비부머는 아직 노년기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연금으로 보완할 수 없어서 가구소득이 감소하면 소비지출도 제약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생애 첫 직장을 정규직으로 시작한 베이비부머의 빈곤 확률이 비임금 근로자로 직업생활을 시작한 베이비부머에 비해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베이비부머의 경제력이 높다는 사회적 통념은 고용이 안정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제언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전에 다양한 일자리에 진입, 이탈을 반복하듯(정은경 외, 2015 재인용) 본 연구에서도 47%는 고용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 베이비부머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물론 지금까지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일자리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일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은 평균 53세에서(통계청, 2005) 49.1세로(2014년) 낮아진 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통계청, 2014; 2017).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라도,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연령이 더 낮아진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베이비부머세대의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다는 것이 베이비부머가 일할 능력이 높고 더 오래 일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Cornman and Kingson, 1996) 고용연장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고령자 고용을 권고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이 왜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는지 파악해서 장해요인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고용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소득공백기간 축소방안: 법적 퇴직연령과 연금수급연령 연계

현재	법적 퇴직연령	'17	'18년	'23~'27년	'28~'32년	'33년~
	연금수급연령	60세→ 소득공백(crevasse) 발생			
개편 방향	법적 퇴직연령	60세	62세	63세	64세	65세→
	연금수급연령	60세→			65세→ (연금수급연령과 일치)

자료) 필자작성

또한 베이비부머 가운데 일하지 못하는데 연금수급연령에 이르지 못해서 공적연금을 받을 수 없고, 자산을 현금화해서 소비지출을 줄여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비율

이 높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60세 정년 안착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년연령을 65세로 연장하여 연금수급연령(65세)과 일치시킴으로써, 일하기 원하는 고령자의 근로기간을 연장하고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그림 3〉 참고).

둘째, 고령자(장년) 고용정책 및 노인복지정책이 저학력·저소득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인적자본이 높고 직업력이 안정적이었던 고령자를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주어진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자에게 정부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맞지만, 직업경력이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던 베이비부머가운데 고용이 안정된 계층은 절반에 불과하고 빈곤위험도 높다. 따라서 인적자본과 직업력이 높은 고령자도 정책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정책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금지원보다는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베이비부머가 질 낮은 직접일자사업(direct job creation)에 참여하기보다는 훈련과 전문 취업연계서비스를 통해 민간의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노동경력이 다양한 만큼, 베이비부머의 삶의 궤적을 반영하여(Cornman and Kingson, 1996) 개인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참여자 특성별 교육훈련 차별화 및 기업수요에 맞는 교육훈련, 개인별 활동계획 수립 및 체계적 사례관리 등).

셋째, 생애 첫 직장의 고용안정성(정규직)이 60세 전후의 빈곤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정책은 특정 시점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생애주기적 관점에 따라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적정소득뿐 아니라 소득의 안정적 지속성도 중요하므로 고용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는 정책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정책적·학술적으로 간과되었던 베이비부머의 노동경력과 빈곤과의 관계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소득빈곤뿐 아니라 소비빈곤도 검토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청장년기 노동경력을 포함하지 못해서 생애 노동경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가구 내 취업자 수의 변화처럼 빈곤과 관계된 요인을 반영하는데 미흡해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금봉. 2016.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인분석 - 직업숙련 유형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6(1): 27-56.
- 강성호·김경아·김기홍. 2015. “경제활동 유형별 여성의 근로이행 확률과 근로안정성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연구》, 33(2): 181-212.
- 김교성·김성욱·이정면·노혜진. 2008. “빈곤의 측정과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9(3): 297-320.
- 김기현.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분석, 방하남 편”,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연구》, 10-61. 한국노동연구원.
- 김대일. 2007. “불평등도 지표로서의 소득과 소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30(3): 77-102.
- 김성태·김명규·임병인. 2016. “우리나라 소득빈곤 및 자산빈곤의 이행추이 분석”. 《재정학 연구》, 9(3): 127-156.
- 김우성·허은정(2007). “베이비붐세대, X세대, Y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10(4): 31-53.
- 김재호. 2014. “중·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의 노동시장 상태가 빈곤결정에 미치는 효과”. 《사회보장연구》, 30(1): 1-26.
- 김용하·임성은.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36-59.
- 남상호. 2011.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115: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수정·황혜선. 2017. “여성 가구주 가계의 다차원 빈곤: 남성 가구주 가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8(1): 58-75.
- 박길성·함인희·조대엽. 2005. 《현대 한국인의 세대경험과 문화》. 서울: 집문당.
- 박능후·배미원. 2009.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29(2): 151-185.
- 박진희.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이력과 정년현황”. 《주요 고용이슈 심층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방하남. 2011. “베이비붐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노동리뷰》, 2: 5-9. 한국노동연구원.
- 백은영. 2011.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7(2): 357-383.

- 석상훈. 2009. “노인빈곤의 동태적 분석”. 《사회보장연구》, 25(4): 77-99.
- 석상훈. 2011. “고령은퇴자의 퇴직과정과 은퇴후 소득비교”. 《응용경제》, 13(3): 269-295.
- 석상훈·김현수. 2012. “노인빈곤의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생애 근로이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5(3): 99-124.
- 석재은·임정기. 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격차 및 소득원 차이와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7(1): 1-22.
- 석재은. 2013. “한국의 노령여성은 왜 특별히 가난한가?: OECD 국가들의 비교분석에 근거하여 노령효과인가 젠더효과인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61~102.
- 송양민. 2010. 《밥, 돈, 자유-대한민국을 재창조한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서울: 21세기북스.
- 신동균. 2013.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사 연구”. 《보건사회연구》, 33(2): 5-32.
- 이병희·반정호(2009).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학”. 《동향과 전망》, 2: 215-244.
- 이상록. 2011.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사회복지연구》, 42(3): 233-265.
- 이성균.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성취와 직업경험의 다양성”. 《노동리뷰》, 2: 38~49.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신. 2013. “베이비붐머의 노후준비여부에 관한 연구- 일반적 및 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4(2): 73-95.
- 이주환·김교성. 2013. “근로빈곤층의 빈곤이력과 노동경력”. 《사회복지연구》, 44(3): 323-346.
- 유병규·이준협. 2013. “베이비붐세대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베이비붐머 은퇴 참여야 고용률 70% 가능하다”.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 윤희숙. 2013. “근로빈곤층의 빈곤현황과 정책평가”. 《보건복지포럼》, 3: 33-4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동일·권순원. 2016. “가교 혹은 함정? 노동시장 구조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 전환에 대한 연구”. 《인사조직연구》, 24(2): 9-41
- 정운영·정세은. 2010. “저소득 노인가계와 고소득 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26(4): 21-48.
- 정은경·하정화·한경혜. 2015. “베이비붐머의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통제감의 조절·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3): 355-385.

- 정해식·김수완·안상훈. 2014. “다차원적 불평등의 세대간 특성: 현 노인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 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3(3): 337-369.
- 지은정. 2007.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3): 147-174.
- 지은정. 2009. “노후 노동지위: 생애노동경력과 재산을 매개로”. 《한국사회복지학》, 61(1): 323-357.
- 지은정. 2017. 《노인일자리 종합계획(2018~2022) 수립에 관한 연구- Encore Life Plan(앙코르라이프 플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최옥금. 2005.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5(1): 1~42.
- 최현수·류연규. 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통계청.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고령층) 결과》보도자료
- 통계청. 2010a.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보도자료.
- 통계청. 2010b.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도자료.
- 통계청. 2014. “201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 2017.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
- 한경혜. 2010. “베이비붐 세대의 일과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은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한·일 대응방안》. 2010 헬스케어 심포지엄/노인사회참여활성화포럼. 149-162.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6년 빈곤통계연보》.
- 한국은행. 2016. “인구조조 시리즈(3): 주요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 황기돈. 2011.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 생애사와 고용정책》. 한국고용정보원.
- 홍백의. 2005.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75~290.
- Cornman, John M. and Eric R. Kingson. 1996. “Trends, Issues, Perspectives, and Values for the Aging of the Baby Boom Cohorts”. *The Gerontologist*, 36(1): 15~26.
- Haughton, Jonathan and Shahidur R. 2009. *Handbook of Poverty and Inequality*.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Long, J. Scott. 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OECD. 2009. *OECD Employment Outlook: Tackling the Jobs Crisis*. OECD. Paris.

Phillipson, Chris. 2007. "Understanding the Baby Boom Generation: Comparative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Ageing and Later Life*, 2(2): 7~11.

Pruchno, Rachel. 2012. "Not Your Mother's Old Age: baby Boomers at Age 65". *The Gerontologist*, 52(2): 149~152.

《조선일보》. 2016. "시니어 제품, 7세 젊고 5kg 줄이고 3cm 가늘게... 불안·불만·불편 등 '3不' 해소하면 지갑 연다". 11월 10일.

Are Baby Boomers Safe from the Risk of Poverty?: Focusing on Career in the Labor Market

Eun Jeong J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isk of poverty faced by baby boomers depending on their career. This study used secondary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from the first to the 11th wave. As a result,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a baby boomer's career in the labor market affects their economic state around the age of 60. First, the poverty rate of baby boomers has increased from 2006 to 2016 while that of young people has decreased over the same period. If this trend continues, it is expected that the elderly poverty rate will not be reduced, even after baby boomers become senior citizens. Second, 46% of baby boomers have experienced unemployment at least once since 2006, which indicates unstable employment. Third, the gap in income poverty rate is 10 times depending on career and the gap in consumption poverty rate is 20 times depending on career. In particular, the income poverty rate is 60.1% and consumption poverty rate is 51.3% of baby boomers who stopped working after their mid 40's. It is shown that it is difficult to escape poverty even when one has assets, and that it is particularly hard to exit poverty once one becomes poor. Thus, the poverty rate will continue to worsen if the government responds to the problem according to the optimistic expectations that baby boomer employment would be stable and that their risk of poverty would be low based on high educational standards and professional achievements.

※ Keywords: baby boomer, the elderly, poverty, career